

Concert Review

최희연 베토벤 소나타 전곡 시리즈

긴장감 있는 단단한 리듬, 폭발적이고 정열적인 타력

피아니스트 최희연이 8회에 걸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를 계획하고 그 첫 무대를 4월 6일, 금호아트홀에서 가졌다. 3년간 진행될 소나타 시리즈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희연의 연주력에 믿음이 가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속적 관심에서 벗어나 음악에 몰입하고 언제나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려는 철저한 장인 의식 때문이다. 또한 음악을 향한 그녀의 순수한 접근이 청중들을 휘어잡는 가장 큰 힘이 아닌가 한다.

최희연이 베토벤에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저돌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리듬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끊임없는 에너지의 분출이 리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강약의 폭도 훨씬 넓어 때로는 피아노 줄이 끊어질 듯 강렬한 타력이 장내를 뒤덮는가 하면 때로는 세련된 피아니즘이 청중을 설득했다. 실로 피아노라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표출력을 충분히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 첫 프로그램은 1번을 시작으로 15번 '전원', 6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23번 '열정'을 무대에 올렸다. 무대에 등장한 최희연은 처음부터 긴장감 있는 단단한 리듬 처리로 베토벤의 모습을 분명히 했다. 정열적인 타력은 4악장에서 더욱 힘을 발휘, 마지막 음이 멈췄을 때도 긴장에서 헤어나가기 쉽지 않았다. 이어진 15번은 저음부의 지속음이 살아 움직이듯 흐르면서 고음에서 터져 나오는 힘이 불륨을 두텁게 했다. 간결하면서도 단단한 리듬의 분할이 독특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2악장을



거쳐 해학적인 스케르초가 이어졌다. 4악장에서는 돌단을 쌓아올리듯 내면적 질서가 몇 번씩 정점을 향해 반복하며 긴장을 풀지 않은 채 끝을 맺었다. 느린 악장이 빠진 소나타 6번을 후반 처음에 처리한 최희연은 많은 청중들이 특히 관심을 가진 23번 '열정'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집중된 정신적 몰입은 1악장 첫 음부터 힘을 발휘했고 빠른 패시지에서도 소리가 살아 움직여 내성의 증폭된 힘과 더불어 열정의 덩이를 실감케 했다. 최희연은 당당함과 폭넓은 여유를 유지함으로써 정동의 대비를 허물지 않았다. 변주곡의 2악장에서 잠깐 긴장을 풀긴 했지만 슬라브적인 힘의 분출은 3악장에서 다시 열띤 소리의 세계로 청중을 인도했다.

한상우 | 음악평론가

모차르트 페스티벌

시원스럽고 안정된 조형미, 다양한 뉘앙스로 변화하는 음색

지난 4월 11일 호암아트홀에서 박영민이 지휘하는 원주시립교향악단의 '모차르트 페스티벌'이 열렸다. 단원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전문악단보다도 젊은 편이었고, 연주는 안정된 조형미를 접하게 했다.

교향곡 25번에서 모차르트 당시의 아담한 교향악 편성은 그 균형감을 찾아갔다. 지휘자는 연주를 시작하는 마디의 첫 박들을 평균치 이상으로 세계 연출했다. 1악장은 극적으로 볼 때 여러 장면들을 연상시키는 힘이 있었으나 감성적으로는 좀더 유연하게 풀어야 했다. 호른의 연주는 비교적 안정된 것이었다. 2악장에서 바이올린 파트의 질감은 밝고 섬세했고 음악의 유기적인 형성은 더 안정되어갔다. 3악장에서 악센트가 붙은 음들은 마음속에 깊이 베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트리오 부분에서는 호른이 안정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4악장은 시원스럽게 흘렀는데 음악이 끝날 때는 잔향이 너무 길어 불필요한 에코 효과가 생겼다.

피아노협주곡 9번은 피아니스트 이경미가 협연했다. 이경미는 높은 음역에서 사운드들이 구슬 소리를 연상시키게 하는 등 악기 소리의 다양한 뉘앙스를 즐겼다. 그렇지만 그녀의 연주가 좀더 힘차고 강약의 대조감 역시 강화됐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1악장의 카덴차는 짜임새가 안정된 모습이었다. 2악장은 우울한 정서 속에서 카타르



시스가 연출됐다. 이경미는 아주 작은 영롱한 소리들로 정취를 자아냈다. 3악장에서 이경미의 연주는 너무 부드러워 극적인 면모는 부각되지 못했다. 대신 심리적 모습을 기술하는 데는 정성이 담겨 있었다.

이어지는 교향곡 29번 1악장의 연주는 여유가 넘치는 인상이었다. 갑작스런 포르테에는 생동감이 넘쳐흘렀다. 음악은 안정된 조형물로 형태가 잡혀갔다. 음악 속에 고전적 기품이 전제되는 것은 지휘자가 음악의 원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던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 악장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열렸다. 데크레센도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했으나 음악은 전반적으로 시원스럽고 안정된 모습으로 끝맺었다.

이석렬 | 음악칼럼니스트